



168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437번길 67 손골성지 Tel : (031)263-1242 Fax : (031)263-1252



손골편지 스물한 번째

처음으로 본당 주임을 맡아 갔을 때,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는커녕 나쁜 말, 싫은 소리하는 걸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십 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던데 엄청 순박한 시골 청년인 그의 이름은 '춘삼'입니다. 그를 부를 때에는 이름 때문이라도 늘 다정했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계절로서의 춘삼일도 너무 좋습니다. 성지의 시간을 굳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눈다면 성수기는 봄, 가을이고 비수기는 여름입니다. 그러면 겨울은? 빙하기입니다. 겨울은 빨리 가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일절에 왜 만세들을 부르셨을까? 보통 만세란 좋은 날 하는 건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만세를 한 이유가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세 부른 날로만 기억한 저의 무지가, 무식이 창피했습니다.

비록 독립을 성취되기까지 35년이 더 필요했지만 독립을 선언한 1919년의 3월1일은 광복절만큼이나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의 선포를 위해 잡은 날이 바로 꽃 피는 봄의 첫날이었던 겁니다. 저는 삼일절의 의미를 너무나 늦게 알아 부끄러웠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성지의 개울물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온이 올라 15도가 10일 이상 지속되면 나무가 뿌리에게 지시한답니다. 물을 끌어올리라고. 그리고는 빛을 향해 이파리를 잔뜩 치켜세웁니다. 그러면 식물의 엽록체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을 합성하여 산소와 탄수화물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광합성입니다. 기가 막히죠. 해로운 탄소를 빛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산소와 나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다니...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려 날씨가 맑아지면 막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진정 필요한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그 햇빛마저도 창조하신 참빛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빛의 주님을 뵈고는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떠 제대로 된 시력을 얻었습니다. 눈뜬 장님이었다가 영혼의 시력을 얻은 그는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봄입니다. 마음을 열고 영혼의 팔을 벌려 빛의 주님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독한 탄소를 산소와 에너지로 바꾸듯 사람은 실패를 기회로, 걱정을 기쁨으로, 우울을

의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전환해 주는 신앙의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고 빛의 기도를 통한 광합성을 하러 성지순례를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게다가 한국인에게 삼일절이 소중한듯 손골성지도 3월은 중요합니다. 도리 신부님과 오메트르 신부님의 순교일이 3월 7일과 3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일이 되면 순교 기념미사를 드립니다. 초창기에는 순교자현양대회를 3월 7일에 열기도 했습니다.

작년 수지지구 신부님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수지지구 순교자현양대회를 두 분의 순교일이 들어있는 3월에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는 3월 14일에 제대리구장 문희 중요한 세례자 주교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장소는 기존의 상현동 성당입니다. 손골성지가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순서는 10시 순교자호칭기도, 10시30분 순교자현양미사, 12시 점심식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시락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주교님도 신부님도 수녀님도 모든 교우님도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선택했습니다.

수지지구 신자뿐만 아니라 손골성지를 아끼는 모든 교우들이 모여 두 성인의 순교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후원자님들의 두 손 모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후원자님들이 은총의 사순시기를 잘 보냄으로 기쁨이 부활을 맞이하시도록 성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손골성지에서, 다미아노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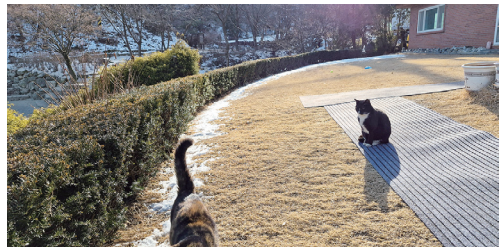
오메트르 쉼터

● 손골성지에서의 특별한 단체모임!!!

손골성지에서는 레지오 주회합, 혹은 반모임 등 다양한 신앙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쉼터 회합실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모임을 원하시는 단체는 손골성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 주회합을 위한 모든 성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Fr.김기창, 강순진, 강원덕, 강윤숙, 강혜영, 고영숙, 고종희, 곽외심, 권금숙, 권영복, 권택인, 김경미, 김광조, 김기연, 김대우, 김도훈, 김도희, 김동은, 김명희, 김문경, 김미영, 이상연, 김성겸, 김수현, 김순태, 김순환, 김시환, 김억래, 김연철, 김영자, 김이섭, 김재성, 김재훈, 김정자, 김종이, 김주봉, 김창기, 김창로, 김청자, 김춘기, 김태경, 김현기, 김혜선, 김혜옥, 김효성, 남정훈, 문기덕, 민경화, 박경수, 박경희, 박광윤, 박성옥, 박순희, 박완자, 박인숙, 박재영, 박창호, 배제호, 백미경, 백정란, 성순옥, 송경호, 신금란, 신동옥, 신지영, 신현순, 안영기, 안용수, 양미진, 양종만, 엄용희, 여승현, 오병택, 오용일, 오이진, 오희선, 윤상용, 윤성옥, 윤중필, 윤혜주, 윤호용, 이경숙, 이경옥, 이근순, 이명미, 이문복, 이상순, 이세영, 이승준, 이영란, 이웅복, 이유미, 이은화, 이재웅, 이정숙, 이형원, 이호성, 이효주, 임동구, 임종수, 임희자, 장명자, 전주원, 정경순, 정경화, 정구승, 정모유, 정보혜, 정소영, 정승희, 정애란, 정연순, 정진식, 정행자, 조성혜, 조영채, 주미선, 주재선, 최경숙, 최수정, 최수환, 최승진, 최영진, 최용분, 최훈근, 최희선, 한미녀, 한수정, 한애숙, 한지원, 함윤희, 허정희, 홍보경, 홍수경, 홍순기, 홍혜진, 황보일, 황애현, 황은숙, 황혜정, 광고산장, 상현동성당

(2026년 1월 성지후원금 총 5,153,000원)

손골성지 소식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손골성지에서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매일 봉헌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부름심을 받으신 후원자를 위해서는 사랑미사를 포함 3대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사시간 안내

주일·평일 오전11시 (월요일 없음)

문의 : 사무실 ☎ (031) 263-1242

후원계좌 안내

신 협 : 03227-12-001983

농 협 : 235100-51-010119

국민은행 : 203901-04-199515

하나은행 : 414-110501-00504

예 금 주 : (재)천주교 수원교구 손골성지

순교 160주년 기념 제15회 수지지구 순교자 현양 대회

순교 160주년 기념 제15회 수지지구 순교자 현양 대회가
2026년 3월 14일(토), 상현동 성당에서
제1대리구장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님 주례로 개최됩니다.

※ 미사 참례하시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도시락 제공

손골성지 관련 저서

● “성(聖) 도리 신부와 손골”

(한글, 불어, 영어) (윤민구 신부 외 지음)

● “성(聖) 오메트르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성(聖) 오메트르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공역)

● “성(聖) 도리 신부 자료집”

(불어) (윤민구 신부 엮음)

● “성(聖) 도리 신부와 병인박해”

(한글) (윤민구 신부 지음)

● “성(聖) 도리 신부의 편지”

(한글) (윤민구 신부 역)

※ 이 책들은 손골성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